

경북교육청, 전국 첫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발달’ 돕는다

언어·문화 차이에 발달지연 위험 조기진단 프로그램 등 지원 계획 6개월간 39개 어린이집서 운영

경북교육청이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최초로 이주배경 유아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어린이 집에 재원 중인 이주배경 유아들의 언어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제결혼·외국인 가정 자녀 등 이주배경 유아의 언어발달 지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보통합 실현과 지역사회 정주 기반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도 함께 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는 5세 미만 언어발달 지연 영유아 수는 2017년 7075명에서 2021년 9219명



경북교육청.

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주배경 유아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 위험이 더 크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가정·기관·지역사회 연계형 언어발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진단부터 프로그램 운영, 치료 연계까지 통합적·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유아가 재원 중인 도내 3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도내 어린이집 3~5세 유아 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받는 39개소의 유아가 대상이다.

경북교육청은 각 기관에 언어발달 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현장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질적 내실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선정된 기관에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언어발달이 의심되는 유아에게 종합심리검사 등 진단비를 지원한다.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치료센터와 순회 언어치료사와 연계해 개별·그룹 치료를 제공하는 언어발달 지연 유아 검사비도 준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언어놀이, 그림책 활동, 독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도 운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주배경 유아들이 언어 장벽 없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사업이 이주배경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돕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반구천 암각화’ 시티투어 개편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시티투어 경로를 개편해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세계유산 등재로 예상되는 관광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구천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개편 내용은 기존 토요일 ‘아름다운 달빛 투어’에 주간 ‘시간 투어’를 신설하고, 일요일 ‘패밀리 투어’를 ‘세계유산투어’로 전환하는 것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부산시는 최근 결혼·임신·출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담은 올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부산에서 삶을 잇다’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정리한 종합 정책 자료집이다. 인생 전반에 걸친 주요 지원 정책을 생애 단계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책자에는 ▲결혼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공통, 8대 분야 맞춤형 지원 207개 인구정책 사업이 수록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수소차 보급·충전 인프라 개선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 상향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 등 개선

포항시는 수소자동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소 가격 상승으로 수소차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는 보조금 확대와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했다. 승용 수소차의 경우 기존 대비 500만 원, 수소버스는 6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차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시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시는 충전소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포항장흥수소충전소 운영 주체, 현대자동차, 전세버스협회 등과 수시 간담회를 열어 이용자들의 목소



포항장흥 수소충전소.

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충전소 운영 시간 연장 ▲충전 대기 시간 단축 ▲충전기 고장 대응 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충전소 운영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뤘다.

또한 북부권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일만산업단지 내에 오는 2026년까지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버스를 운행 중인 운수업체와 협력해 대중교통 분야의 수소차 보급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공공 건설현장 36곳 안전점검

내달 말까지 실시

경남도는 시·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도내 공공 건설현장 36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건설업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절반에 가까운 64명을 차지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휴게공간 설치 및 운영 적정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이다.

경남도는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폭염 시 근무시간 탄력 운영 ▲공사 중지·연장 제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폭염예보 서비스 가입(카카오톡 중대재해사이렌) 등 안전수칙과 우수사례를 민간 건설 현장에도 수시로 안내해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앞서 5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도내 공공발주 건설현장 988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일제 점검을 시행해 현지 시정 165건, 보수·보강 16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되는 이상 기후로 올해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최우수상’

3년 연속 전국 최고수준 성과

경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경북도는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성과를 입증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도 경북의 성과는 두드러졌다. 김천시와 구미시가 각각 최우수상을, 칠곡군이 우수상을 받으면서 총 3개 시군이 우수 지

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경북도의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문에서도 구미시니어클럽 등 도내 15개 전담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별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총 1억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6만 4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7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9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노인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교육청, AI 교육 네트워크 구축

K-ICT WEEK 행사서 ‘AI 교육관’ 운영

부산시교육청은 15일부터 17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K-ICT WEEK in BUSAN 2025’ 행사에 인공지능 교육 사례 공유와 가치 확산을 위한 ‘AI 교육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K-ICT WEEK in BUSAN 2025 행사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미래선도기술 종합 전시 행사이다.

AI 교육관은 K-ICT WEEK in BUSAN 2025의 3개 세션 중 하나인 ‘AI IKOREA’에 속하는 행사로, AI 전시와 콘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다양한 교육 분야의 네

트워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교육관에는 초·중·고·특수학교 26개교와 부산교육청이 참여하는 총 27개 부스가 운영된다.

학교 부스에서는 AI 기반 교육 연구 및 실천사례, 2022개정 교육과정 정보교과 확대에 따른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성과, AI·정보교과를 활용한 수업 혁신 사례 등을 소개하고, 수업 역량 강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한다.

교육청 부스에서는 추석탁 한얼고 교사의 ‘디지털 대전환의 첫걸음-개정교육과정과 함께 변화하는 교육 공간 혁신’을 시작으로 초, 중, 고 교사 6인의 AI 기반 수업사례가 발표된다. 또 인기 유튜브 ‘쥬립퀵’과 이규동 스탠리팀 대표의 진로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저수지 3207곳 저수율 실태 점검

전남도는 최근 이어진 폭염과 짧은 장마로 인한 강수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3207곳의 저수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수율 실태, 취수시설 작동 상태, 누수 여부 및 대체 수원 확보 현황 농업용수 공급과 직결되는 주요 항목을 전반적으로 점검, 용수 부족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총 3207곳의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수해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부족하거나 매년 농업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중점관리저수지 46곳에 대해서는 저수율 5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비상급수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해 물채우기를 시행 중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